

조사보고서

2022-1

2022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

2021. 12



I. 조사의 개요

1. 조사목적

-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정부 및 시·도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

2. 조사기간, 조사방법

- ◆ 2021년 4/4분기(10, 11, 12월) : 실적기간
- ◆ 2022년 1/4분기(1, 2, 3월) : 전망기간
- ◆ 조사기간 : 2021. 11. 24. ~ 2021. 12. 7. (휴일제외 10일)
-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3. 조사대상

- ◆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사
- ◆ 응답개수 : 69개 (설문지 회수율 : 37.1%)

4. 조사내용

-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5. 집계·분석

- ◆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처리

6.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 ◆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

기업 경기 실사지수(BSI)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 \frac{\text{증가(+)}\text{표시업체 수} - \text{감소(-)}\text{표시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 ◆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

II. 2022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

1. 종합전망

가. 개황

- ◆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설문지 회수 : 69개, 회수율 : 37.1%)으로 2022년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88.4' 로 조사되었음.
- ◆ 이중, 석유화학 연관업종(n=38개)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BSI)는 '94.7' 임

나.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

【종합 (N =69)】

구 분	항 목	전체	
		2021년 4/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2년 1/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95.7	88.4
	매출액	107.2	91.3
	영업이익	94.2	82.6
	설비투자	91.3	89.9
	자금조달여건	87.0	92.8

【석유화학 연관업종(N=38)】

구 분	항 목	전체	
		2021년 4/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2년 1/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100.0	94.7
	매출액	115.8	97.4
	영업이익	105.3	81.6
	설비투자	92.1	89.5
	자금조달여건	92.1	97.4

【일반업종(N=31)】

구 분	항 목	전체	
		2021년 4/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2년 1/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90.3	80.6
	매출액	96.8	83.9
	영업이익	80.6	83.9
	설비투자	90.3	90.3
	자금조달여건	80.6	87.1

2. 설문 결과 분석

- ◆ 2022년 1/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BSI, n=69)는 ‘88.4’로 조사되었다. 응답 개수 : 69개 (설문지 회수율 : 37.1%)
- ◆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부정적”인 결과다.
- ◆ 2022년 1/4분기 조사결과는 전 분기 체감경기 지수와 비교하였을 때 소폭 하락한 수치다.
 - 89.4(2019년 3분기)⇒ 70.6(2019년 4분기)⇒ 94.1(2020년 1분기)⇒ 73.2(2020년 2분기)⇒ 58.0(2020년 3분기)⇒ 44.1(2020년 4분기)⇒ 65.2(2021년 1분기)⇒ 91.5(2021년 2분기)⇒ 83.8(2021년 3분기)⇒ 89.3(2021년 4분기)⇒ **88.4(2022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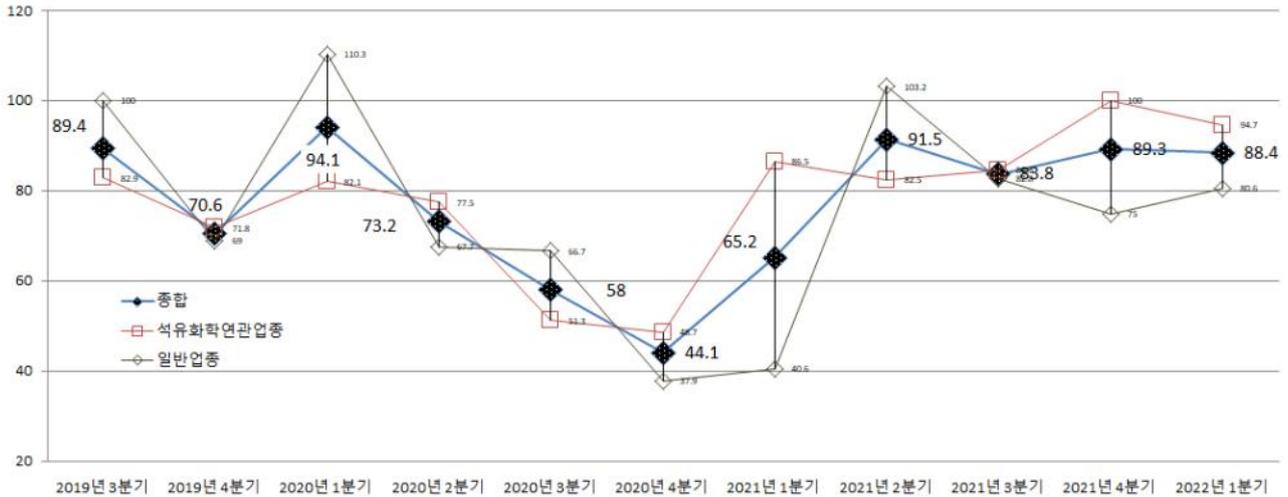


그림 BSI 추이 (2019년 3/4분기 ~ 2022년 1/4분기)

- ◆ 조사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호황 소식과 연초 소비 심리 급증 경향으로 완화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89.3 → 88.4)의 경기전망지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업종은 지난 분기대비 5.3 하락한 반면, 일반제조 업종은 지난 분기보다 5.6 상승하여 업종 간 차이가 14.1을 보였고 지난 분기 차이(25.0)대비 간격이 줄어든 것이 이번 조사의 특징으로, 종합전망지수 추이는 2020년 4분기 이후 계속 상승추이는 이어졌다는 분석했다.
 - 석유화학 연관업종 : 100.0(21년 4/4분기) ⇨ 94.7(22년 1/4분기) : 하락
 - 일반제조 업종 : 75.0(21년 4/4분기) ⇨ 80.6(22년 1/4분기) : 상승
- ◆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우, 2020년 4분기 이후 완만한 상승 추이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다소 하락하였는데, 오미크론 여파가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산업계의 예측과 정유·석유화학 시장에서 뚜렷하게 확인된 실적 개선 흐름 효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정유산업과 그간의 위축된 글로벌 소비심리가 자동차, 건설, 생활가전 등 후방 산업에 발현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시장 상황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 반면 지난 분기 조사결과 대비 5.6 상승한 일반제조업종의 경우, 2년 여간 위축된 소비심리가 최근 여수 산단 기업의 매출·영업 이익 회복 소식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대면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경기전망지수가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컸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여수상의회는 분석했다. (75.0 → 80.6)
- ◆ 따라서 이번 체감경기조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경제·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지 않고,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올해 연말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엇볼 수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 덧붙여 국제 유가 및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 정제 마진 상승, 제품 스프레드(판매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 회복 전망 등 현물지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석유화학 업계들도 올해 실적 목표를 지난해보다 높게 잡았을 것으로 여수상의회는 분석했다.

【경기전망조사 세부 항목 조사결과】

- ◆ 「새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직 수립하지 못함(63.8%)” > “수립완료(36.2%)” 로 조사되었다.
- ◆ 「새해 사업계획의 방향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보수적 운영(65.4%)” > “공격적 운영(34.6%)” 로 조사되었다.
- ◆ 「새해에 신사업 투자계획은 어떻습니까?」의 질문에 “기존사업의 확장 수준의 투자(42.3%)” > “특별한 신규투자 계획 없음

(38.5%)” > “신산업·신기술분야에 적극 투자(19.2%)”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새해 귀사 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원자재가격 상승(40.4%)” > “코로나 여파 지속(23.4%)” > “부품조달 등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9.9%)” = “국내·미국 등 금리인상(9.9%)” = “탄소절감 등 환경이슈 대응부담(9.9%)” > “기타(6.5%)” 순으로 조사되었다.
-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경제 활성화(57.9%)” > “부동산 안정(11.6%)” > “국제관계 대응(10.5%)” > “환경이슈 대응(8.4%)” > “정치 선진화(6.3%)” > “복지 확충(5.3%)” 순으로 조사되었다.